

통권 제 250호

강남. 라 00943

2568
2024

8

원정 대상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27
구경의 법



살다 보면
여행에서 배운다




마음의 등불
나를 불렀나?

영원한 진리와 함께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불교충지중

종조법설집

종조법설집 제2장 수행편 P134

인과^{因果}

법계^{法界}에는

길흉화복^{吉凶禍福} 선악존망^{善惡存亡}의
엄연한 기관^{機關}이 서있을 뿐이지
흥하고 망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지어서 받게되는 것이니라.



마음밭 가꾸는 이야기 _ 48

자리^{自利}와 이타^{利他}
무엇이 먼저인가?
_ 하현주



동행 _ 56

절영지회^{絶纒之會}
_ 탁상달



나만의 빛, 모두의 빛 _ 72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_ 한국전통등연구원

-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 10 불교 이야기
- 14 마음챙김 메커니즘
- 20 절기 이야기
- 22 고전 속으로
- 25 문화재 해설
- 28 산책
- 30 살다보면
- 36 마음의 등불
- 42 지장스님의 향유
- 44 지혜의 뜨락
- 48 마음밭 가꾸는 이야기
- 52 심선성취
- 56 동행
- 60 생각의 열매
- 64 마지막 공부
- 67 서원당 안의 불교
- 70 금쪽상담소
- 72 나만의 빛, 모두의 빛
- 76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 78 법회일정

- 불공 잘해라 - 구경의 법 - 김천
- 육자대명다라니^{六字大明陀羅尼} ③지송 공덕 - 원당 정사
- 경계^{境界} 나를 제한하는 또 다른 나 - 임진수
-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드는 처서^{處暑} - 워드다라마 편집실
- '될 놈'과 '안 될 놈'의 숨겨진 차이 - 엄관식
- 정덕십년^{正德十年}이 새겨진 석조 지장보살좌상 - 워드다라마 편집실
- 은퇴한 해녀 - 오대혁
- 여행에서 배운다 - 이육경
- "나를 불렀나?" - 법상인 전수
- 인생 숙제 - 지장 스님
- 노인의 경험이 자산이 되는 사회 - 방귀희
- 자리^{自利}와 이타^{利他} 무엇이 먼저인가? - 하현주
- AI 시대 불교에 대한 단상 - 남혜 정사
- 절영지회^{絶纒之會} - 탁상달
- 수수께끼 - 워드다라마 편집실
- 무력하고 위태로운 - 유소림
- 금강계 만다라 불단^{佛壇}의 문양^{紋樣} - 혜광 정사
-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2 -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 한국전통등연구원

워드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불교총지중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불국정도를
염원합니다.

다르마^{다르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워드 다르마^{워드 다르마}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노 스마일(No Smile) 파업

탑승구 | Gate 47

1999년, 홍콩 캐세이퍼시픽 항공사 승무원들은 대대적인 파업을 벌였습니다.

보통 파업은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일제히 작업을 거부함으로써 사업자에게 타격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항공사 승무원들은 모두 출근했고 비행기 탑승 고객을 맞이하며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모든 일을 철차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회사 측에서는 항공사 매출이 급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항공사 승무원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었지만, 고객을 상대할 때 모두 미소가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객 응대를 하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노 스마일(No Smile)’ 파업은 항공사 매출에 큰 악영향을 끼쳤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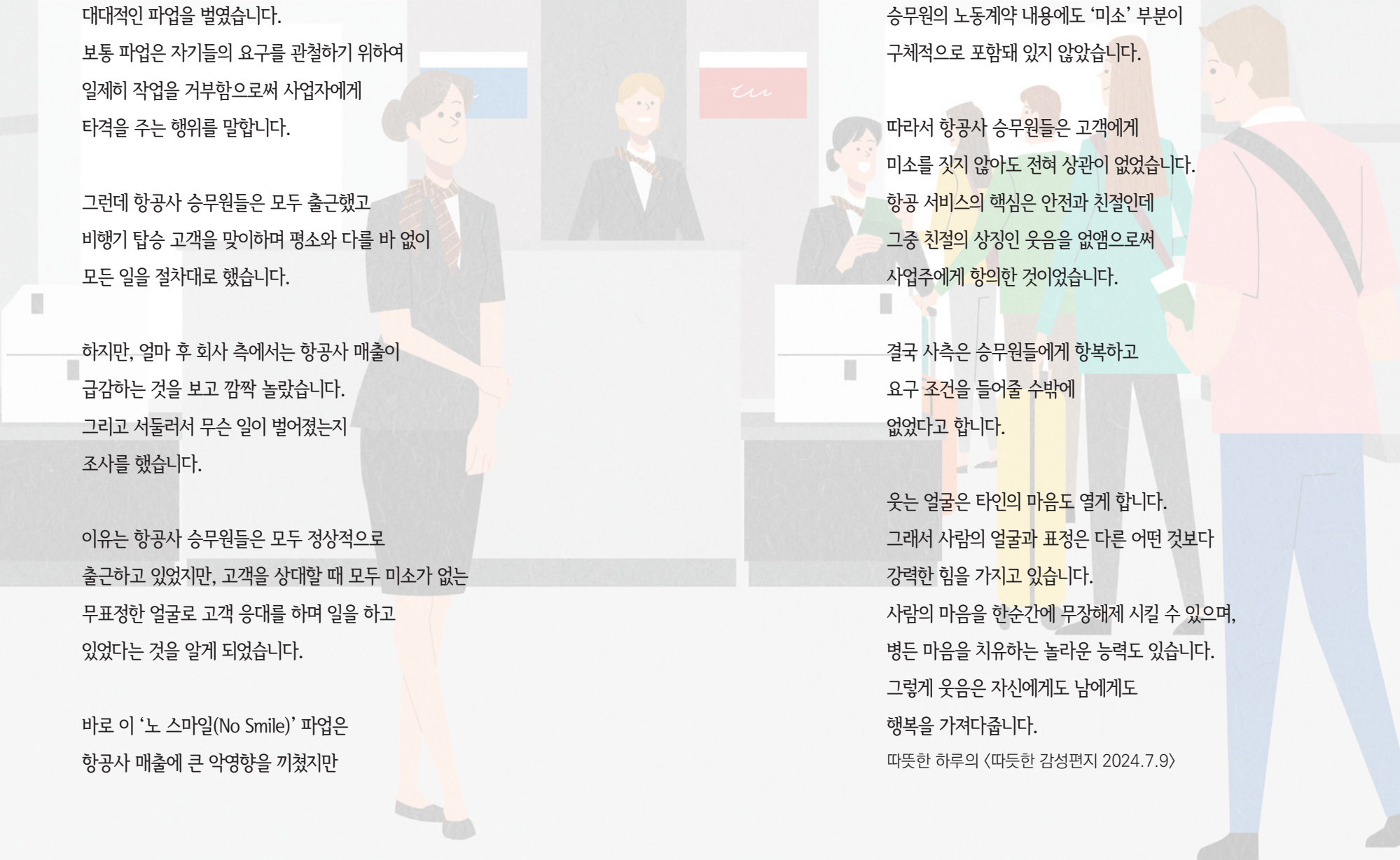
당연히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파업이었으며 승무원의 노동계약 내용에도 ‘미소’ 부분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공사 승무원들은 고객에게 미소를 짓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항공 서비스의 핵심은 안전과 친절인데 그중 친절의 상징인 웃음을 없앴으로써 사업주에게 항의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측은 승무원들에게 항복하고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웃는 얼굴은 타인의 마음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과 표정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에 무장해제 시킬 수 있으며,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게 웃음은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편지 2024.7.9>



불공 잘해라 구경의 법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종자'
'인생탈춤-태허 홍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卽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19화 - 법계와 함께 II

10월 27일에 총본산 건물 옥탑에 대일여래 비로자나불의 지혜와 광명을 드러내 보이는 원상을 세우게 된다. 세상에 정통 밀교 종단의 위상을 펼쳐 보이는 외형적인 기반이 완성된 것이다. 공사가 진행될 때 대성사는 그곳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건축을 독려하고 마장이 없도록 수시로 불공을 올렸다.

치밀한 성품 그대로 어느 것 하나 어긋나지 않도록 살핀 덕에 원상을 올린 며칠 후인 11월 4일 교도들과 전국 스승들이 모여 본관 건물 상량식을 성대히 치르게 된다. 12월에는 총본산 마당에 불사에 동참하여 뜻을 모은 교도들의 정성을 새겨 성불탑을 세우고, 드디어 12월 27일 총지사 2층 서원당 불단

이 개설되었다. 1978년 1월 19일 건축불사의 준공을 마치고 4월 18일 총본산 총지사의 설단 불사를 봉행했다. 이로써 천년을 넘어 맥을 이은 한국 밀교가 다시 천년을 이어갈 터전이 세워진 것이다. 명실상부 '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수행이 생활이 되는 참된 도량'이 세상을 향해 넓은 품을 열었다.

대성사는 항상 총본산을 지키고 있었다. 1층 계단 아래 의자 하나를 두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늘 그 자리에 앉아 들고 나는 교도들을 지켜보고 격려했다. 급한 일이 일어나 총지사로 달려오면 달리 찾아볼 필요 없이 곧바로 대성사를 만날 수 있었다. 누구나 마음에 닳친 혼란과 생활 속에서 벌어진 소소한 일까지 마음속 사정을 대성사에게 털어놓으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잠시 생각에 들었다가 한결같은 가르침을 남겼다.

“무엇이든 간절히 법계에 물어보면, 감응이 있다. 밀교행자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심지를 지켜 법계의 응답대로 행해야 한다. 불공을 잘 드리면 마장은 견히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으니, 사람의 지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법계의 진리가 비추는 바를 따르면 될 것이다.”

그 말 말미에 넌지시 살펴 지켜야 할 바를 일렀다고 한다. 또

한 현실의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는 마음을 닦아 인과로써 돌아보아 그 근본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법계에는 길흉화복^{吉凶禍福} 선악존망^{善惡存亡}의 엄연한 기관^{機關}이 서 있을 뿐이지 흥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다 자기가 지어서 받게 되는 것이다. 원인을 지어서 결과를 받는 것은 하늘과 땅과 부처의 원칙이다. 착한 인을 지으면 착한 과를 받고 악한 인을 지으면 악한 과를 받는다.

효순한 인을 지으면 효순한 과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이 털끝만치도 어긋남이 없다. 인 지어서 과 받는 두 길이 있으나 착한 것을 사람이 알게 되면 사람이 돕고, 모르게 되면 법계에서 먼저 돕는다. 악한 것을 사람이 알게 되면 사람이 먼저 벌을 주고, 모르게 되면 법계에서 먼저 화를 주는 법이다. 말이 패역^悖하게 나가면 또한 패역하게 돌아오고, 재물이 패역하게 들어오면 또한 패역하게 나가게 된다. 자손과 살림이 잘되게 하자면 부모 조상의 영식을 천도^{薦度}하고 복업을 지어야 할 것이요, 재산을 가지고 오래 행복하게 살자면 부처님을 믿고 인과를 내증하며 육행을 실천하여야 행복이 늘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지은 인이 현세의 과가 되고, 작년에 지은 인이 금년에



1977년 총본산에 건립된 성불탑에서 교도들과 함께



1978년 불교총지중 총본산 총지사 준공 당시 전경



아래는 도심화 된 서울 역삼동 오늘날의 총지사

과가 되고, 어제 인을 지은 것이 오늘에 과가 되는 것은 변함없는 인과법칙이다. 나의 착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칭찬을 많이 받게 되면 내세에 복과를 받아도 적고, 사람들이 착한 것을 몰라서 칭찬을 받지 않으면 곧 현세부터 진리의 복과를 받아도 크게 받는다.”

어떤 경우에도 세간의 가치에 따라 사람을 평하지 않고 그의 심중을 깊이 들여다보아 진실한 대답만을 하였는데, 이는 모든 일이 법신불의 삼밀작용이라는 평소의 가르침대로이다. 찾아오는 이를 달리 귀찮아하거나 특별히 더 아끼는 법이 없이 평등하게 대했다. 부처님 가르침과 경전대로 가르침을 주었으

나 평범함 속에 비범한 방도가 숨어 있었다. 특히 밀교의 수행법은 어떤 일에도 해결책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막힌 길을 열어주었다.

“육대^{六大}를 체로 하여 연기하는 세상 갖가지 일들은 반드시 모든 작용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것을 신^身, 구^口, 의^意의 삼밀^{三密}이라 한다. 이는 현교의 삼업^{三業}과 대조된다. 이 삼업을 정화하는 것이 곧 삼밀이니 부처님의 가지력^{加持力}과 관행자^{觀行者}의 공덕의 힘과 법계의 통합력에 의해 정화되는 것이므로 삼밀관행으로 공덕이 일어나는 것이다.

좀 더 확대하면 부처님이 설한 진실한 일을 실행하는 것이 신밀^{身密}이다. 부처님이 설한 진실한 가르침을 입에 담아 말하는 것이 구밀^{口密}이다. 부처님이 설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의밀^{意密}이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양면으로 전인격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니, 그 진리를 지성이나 평면적인 사유에 그치지 않고 인격 전체에 입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 행하면 삼밀이 되는 동시에 행자의 자기확립이 되는 것이다.”

듣는 이에 따라서는 당연한 말이나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으나, 당시 대성사의 말과 뜻과 행동이 실제로

그렇게 보였으니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특히 총지종 총본산에 주석하면서부터 밀교법과 관련되지 않는 말은 일체 입에 담지 않았다. 나의 몸이 법계를 대표하여 관세음보살과 다를 바 없음을 아는 믿음으로 삼밀이 진실함을 실제로 보인 것이다.

대성사는 평소 교도들에게 ‘밀교를 수법하는 진언행자는 대일여래의 삼밀과 행자의 삼밀관행이 상응할 때 법계에 평등함을 실제로 얻고 깨달아 스스로 불도를 성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깨달음과 수행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현실과 생활 속에서 진실하게 생각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 진실한 행을 하여 삼밀을 이루면, 법계와 행자가 평등한 현실을 깨닫게 되고 법신여래의 삼밀이 행자의 삼밀과도 같아져 결국 즉신성불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깨달음을 강조하고 주장하며 말을 앞세우는 경우는 많았지만, 현실에서 그 실재를 이룰 수 있는 법을 밀교의 삼밀행을 통해 진실하게 보이고 있었다. 생활이 수행이 되고 수행이 생활이 되며, 불법과 생활이 일치하는 교법은 대성사의 일상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었다. 그러니 어떤 경계가 와도 늘 담담히 대하고 교도들의 화급한 물음에도 구경의 대답으로, 화를 공덕으로, 경계를 수행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육자대명다라니 六字大明陀羅尼

③ 지송 공덕

월당 정사

진주 화음사



중생들이 고난과 액난을 당하여 괴로워 할 때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심으로 칭명할 것으로 가르친다. 중생들이 고뇌에서 벗어나고 소원을 이루려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라고 하였다.

“선남자여, 만약 무량 백천만 억의 수많은 중생들이 일체의 모든 괴로움을 받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서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에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밀교에서는 이러한 칭명염불 대신에 다라니를 지송한다. 칭명염불이나 다라니의 지송이 모두 마음을 통일하여 불보살님의 대위신력에 힘입어 고난에서 벗어나고 소원을 성취하고 지혜를 증득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승장엄보왕경』은 육자대명다라니의 지송공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육자대명다라니를 항상 수지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지송할 때는 아흔아홉의 공하사수 여래가 모이고, 또 미진수의 보살이 모여, 다시 삼십 이천의 천자들이 모두 모이고, 또한 사대천왕이 사

방에서 그를 호위한다. 또 사아라용왕, 무열뇌용왕, 득차가용왕, 바소지용왕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무수한 백천만 구지 나유다의 많은 용왕이 와서 이 사람을 호위한다. 또 땅속의 아차며 허공신이 등이 있어 또한 이 사람을 호위한다.”

육자대명다라니를 지송하면 지송자가 머무는 곳 마다 수많은 불보살과 천룡팔부의 신들이 와서 지송자를 수호한다.

“선남자여, 그 진언을 지송하는 사람은 그의 뱃속의 모든 벌레도 반드시 퇴전하지 않는 보살의 지위를 얻게 된다.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 다른 사람의 몸에 닿으면, 닿게 된 그 사람은 자비심을 일으키고, 모든 진심의 독을 여의어 반드시 퇴전하지 않는 보살이 될 수 있으며, 속히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증득할 것이다. 만약 이를 받들어 지닌 사람의 손이 다른 사람의 몸에 닿으면, 닿게 된 그 사람은 속히 보살의 지위를 얻게 된다. 만약 이를 받들어 지닌 사람이 남녘, 동남, 동녘 내지는 다른 종류의 모든 유정들을 보게 되면, 보이게 된 자는 다 속히 보살위를 얻게 되느니라.”

이처럼 지송자 본인뿐만 아니라 지송자와 인연 있는 중생들까지도 육자대명다라니의 공덕을 입게 된다고 설한다. 육자대명다라니를 지송하면 세속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서 세간적 현세이익의 성취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살 위를 성취하고 구경에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성취하여 성불에 이르게 된다고 출세간적 성취에 대하여서도 설하였다. 또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육자대명다라니의 염송을 법에 따라 염송하면 지마니보삼마지등 108삼마지를 얻는다고 설하고 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법에의 지하여 이 육자대명다라니를 염송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삼마지를 얻을 것이니라.”

삼마지는 산스크리트어 Samadhi를 음역한 것으로 원래의 뜻은 ‘한 곳에 놓는다’는 말로써 흔히 삼매라고도 한다. 삼매란 마음을 한 곳에 정하여 움직이지 않는 상태이므로 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유지되어서 지혜가 나타나므로 등지라고도 하고, 마음이 조절되므로 조직정이라고도 하고,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법이 비로소 나타나서 즐겁게 머물게 되므로 현법락주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한곳에 오로지 머물게 하여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신통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삼마지의 일반적 해석으로 밀교에서 말하는 삼마지는 『보리심론』에서 “오직 진언법 중에서만 즉신성불하는고로, 이 삼마지법을 설하고 모든 교 가운데 꺾하여 기록함이 없다.”고 하여 진언법에서는 이 삼마지를 통해서 여래의 일체지지를 얻게 되어, ‘즉신성불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삼마지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삼마지는 중생들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보리심에 안주하여 깨달음을 얻어서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닌 경지를 체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밀교의 삼마지는 모든 사물의 인연을 통해서 그것에서 부처를 보고, 내가 부처임을 아는 것이다. 마음을 삼매에 머물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니, 항상 정신을 통일하여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닌 범성불이의 경지에 머무르는 수행이다.

이것을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이 육자대명다라니는 곧 관자재보살마하살의 미묘본심이니, 만약 이 미묘본심을 아는 자가 있으면, 곧 해탈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여 삼마지에 들어가서 관자재보살의 본마음이며, 제불보살의 본마음인 육자대명다라니의 묘리를 알면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경계 境界

나를 제한하는 또 다른 나

임진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메디테이션 봄 명상센터 대표

명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보통 마음의 괴로움을 줄이는 것을 기대하면서 명상을 시작한다. 마음속에 출렁이는 마음의 괴로움을 어떻게든 진정시키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시작한 명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엿본다. 출렁이는 마음들 - 감각, 감정, 생각, 욕망 등을 처음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출렁이는 마음이 명상을 통해 잦아들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의 고요함을 얻게 된다. 그렇게 고요함을 얻는 과정에서 집중과 마음챙김이라는 부수적인 이익도 생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다시 세상에서 일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고요한 줄 알았던 그 마음은, 다른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그 고요함을 잃고 출렁이는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어한다. 문제는 이런 괴로움이 발생하는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분명 잔잔하게 만들었다고 믿었던 마음이 새로운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출렁임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의 힘을 조금 얻은 것 같지만, 조금만 변형된 괴로움이 생기면 대책 없이 그 괴로움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기출 변형된 외부의 충

격에는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마음의 크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크기가 존재한다. 사람마다 그 마음의 크기, 모양, 색깔, 질감(결)이 다 다르다. 이 중에서 모양, 색깔, 질감(결)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개인의 성격이라서 바뀌질 않는다. 타고난 개인 고유의 특성이기 때문에 바뀌질 않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표현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인의 특성은 나이를 먹으면서 잦아들긴 해도, 변하질 않는다.

즉, 외부로 표출되는 표현방식은 달라질 수는 있어도 개인의 특성은 변하질 않는다. 유일하게 변화가 가능한 것은 마음의 크기이다. 마음의 크기도 선천적으로 타고난다. 하지만 마음의 크기는 노력에 따라 성장할 수 있다. 또한 마음의 크기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마음의 요소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을 대하는 방식이 변한다.

마음에 크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비추어보자면, 사람들은 똑같은 행위에 대해 사람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 같은 행위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냐 혹은 싫은 사람이 하는 것이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진다. 같은 행위에 대해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것은 웃어넘길 수 있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마음에 걸림이 남는다. 이것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느슨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 역시 자신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기분이 좋을 때는 싫은 사람의 싫은 행위도 받아들여지는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좋은 사람의 좋은 행위도 거슬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마음이 유연해지기도 하고 딱딱해지기도 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대상에 따라 혹은 내 기분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 마음도 한계점이 존재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지점, 즉 마음의 극한점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마음의 경계’이자 ‘나의 경계’라고 한다.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바깥경계’라고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안경계’라고 한다. 즉 외부의 상황과 내면의 마음상태로 나누는 것이다.

이 마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경계는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타고난 그릇’이 존재하는 것이다. 작은 그릇은 안에 담을 수 있는 양도 적고 작은 충격에 쉽게 흔들린다. 반면에 큰 그릇은 안에 담을 수 있는 양도 많고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작은 그릇의 소인배들은 쉽게 동요한다.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반응하게 되고 그 결과 본인 자신도 힘들어진다. 반면, 큰 그릇의 대인배들은 작은 충격엔 반응하지 않게 되고, 느낌이 있더라도 쉽게 흡수된다. 외부의 충격을 바깥경계라고 봤을 때, 마음이 작은 사람은 쉽게 흔들리면서 쉽게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큰 사람들은 잘 흔들리지도 않고 괴로움도 미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즉 마음의 크기에

따라 바깥경계에 대한 안경계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작은 종은 크게 때리면 깨지지만 큰 종은 크게 때리면 좋은 소리를 낸다.

마음의 크기는 지능과는 완전 별개이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경우 오히려 마음이 좁은 경우가 더 많다. 그들은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자신의 분별을 믿으며 자신의 판단이 늘 옳다고 느낀다. 즉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믿음에 갇혀서 점점 마음이 좁아진다. 자신이 옳기 위해서는 상대가 틀려야 하기 때문에, 또한 상대도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겸손하거나 너그러운 사람들은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둔다. 자신의 분별이나 자신의 판단보다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열어둔다. 나도 옳을 수 있고 상대도 옳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넓어진다.

마음의 크기는 경계를 극복하면서 성장한다. 불교에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백 척이나 되는 긴 장대 위에 있어서 다시 한 걸음 더 나간다’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으로 막다른 위협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한 발 더 나가라’는 의미이다. 즉,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극한점에서 한

번 더 마음을 내라는 것이다. 그렇게 극한점을 극복해야만 마음의 경계가 넓어진다. 도저히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을 때 내딛는 그 한걸음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수행도 이와 같다. 집중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챙김에도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마음을 바라본다고 해서 자신의 성격이나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 자신을 가두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늘 테두리 안에서 쳇바퀴 돌 듯 반복해서 사용하는 마음만 보는 것이다. 그러다가 경험해보지 못한 바깥경계에 부딪치면 그동안 해왔던 수행은 온데간데없이 나를 놓치게 된다.

마음의 크기를 성장시키는 것은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마음의 크기(안경계)가 커지고 커져서 어떤 외부의 자극(바깥경계)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크고 작은 외부의 자극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마음은 완전한 휴식을 얻는다.

나아가 이런 마음의 경계가 사라지면, 나의 경계도 사라지고 어떠한 경계에도 걸리지 않게 된다.

이것이 무아무심(無我無心)이며 명상의 요체이며, 주어진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처서는 ‘더위^暑가 그친다^處.’는 뜻으로 처서가 지나면 여름 더위도 가시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 24절기 중 열네 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처서는 입추와 백로 사이에 들며, 태양이 황경 150도에 달한 시점으로 양력 8월 23일, 음력 7월 15일 무렵이다.

흔히 처서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 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드는 계절임을 뜻하는데, 이런 자연의 변화를 <고려사>에서는 처서의 15일간을 5일씩 3분하여 첫 5일간인 ‘초후’에는 매가 새를 잡아 제를 지내고, 둘째 5일간인 ‘차후’에는 천지에 가을 기운이 돌며, 셋째 5일간인 ‘말후’에는 곡식이 익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조금씩 누그러져 풀이 더이상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주로 논두렁의 풀을 깎거나 산소를 찾아가 별초를 한다. 음력으로 추석을 앞두고 있어 이 무렵에 별초를 해야 추석 성묘까지 산소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선조들은 습도가 높은 여름에 젖은 옷이나 책을 음지에 말리거나 햇



볕에 말리는 일, ‘포쇄^{曝曬}’를 처서에 했다고 전해진다. 이때 부녀자들은 옷을, 선비들은 책을, 농부는 곡식을 햇볕에 말렸다고 한다. 한편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말처럼 처서의 서늘함으로 파리,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도 사라지고 귀뚜라미가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한다.

또 이 무렵은 음력 7월 15일 백중의 호미씻이도 끝나는 시기여서 농사철 중에 비교적 한가한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정 칠월, 건들 팔월”이란 말도 한다. 어정거리면서 칠월을 보내고 건들거리면서 팔월을 보낸다는 말인데, 다른 때보다 그만큼 한가한 농사철이라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말이다.

처서 무렵은 벼이삭을 패는 등 오곡이 마지막 열매를 맺는 때로, 햇볕이 강하고 쾌청해야 수확이 좋아진다. 이처럼 농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처서에는 풍흉을 점치는 날씨 점을 치곤했는데, 처서에 비가 내리면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않아 흉년이 든다고 여기기도 했다.

‘될 놈’과 ‘안 될 놈’의 숨겨진 차이

엄관식

2023 '한국고전종합DB' 활용 공모전
고전문구 부문 당선작

대체로 곤궁한 자는 운명도 박하고 재주도 없는 경우가 많으며,
영달한 자는 운명도 트이고 재주도 있는 경우가 많다.

大抵窮者多命薄而無材 達者多命通而有材
대저궁자다명박이무재 달자다명통이유재

- 성대중^{成大中}, <청성잡기^{靑城雜記}> 4권 「성언^{醒言}」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번 삶이 그 꿈을 실현할 유일한 시간임을 알기에 고된 수련도, 치열한 승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사는 우리도, 의문이 드는 순간은 있습니다. 꿈에 다다르기 전에 거쳐야 할 현실의 주요한 길목들을, 별다른 수고로움이나 어려움의 흔적없이 선점한 이들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남다른 능력을 지녔으리라 짐작하지만,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자기 기량이 좀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터에 자기보다 순탄한 길을 밟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여유롭게 대하기는 어렵



습니다. 같은 경험이 거듭될수록 ‘노력은 열정의 낭비이고, 인생은 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만합니다. 바로 그런 좌절과 소외감을 반쯤 체념적이고, 또 반쯤 냉소적인 투로 엮어낸 조어^{造語}가 있지요. “될 놈 될, 안 될 안”이라는.

‘될 놈은 될 해도 되고, 안 될 놈은 될 해도 안 된다.’ 경쟁사회에 부대끼는 현대인의 쓸쓸한 정서가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고전 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할 것을 이미 헤아렸나 싶은 구절이 존재한다는 사실어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타고난 운수^{運數}일까요, 아니면 갖추어진 재능일까요. 조선 후기의 학자 성대중은 불운을 겪는

이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행운을 누리는 이는 역량이 충분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될 놈 될, 안 될 안’이라는 말에 담긴 숙명론^{宿命論}에 그 역시 공감하고 있는 듯하지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대중은 오히려, 운수와 재능 중 어느 한 가지 요인만으로 삶의 성패가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럼 그의 말에 숨겨진 진짜 속뜻은 무엇일까요.

누구도 자신의 운수를 스스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 키울 수는 있습니다. 만약 성패가 운수와 재능의 조합에 따른 결과라면, 예상과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 대신 선택과 관리가 가능한 요인에 집중하는 편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종종 포기하거나 단념하고 싶어지는 오늘的人们에게 성대중은 이런 위로와 조언을 전하려 했다고, 저는 짐작합니다. 실패를 곧 불운이라 여겨 낙심하지 말라고. 꾸준히 다진 재능을 펼칠 기회가 올 때까지, 그 기회를 단단히 붙들어서 행운이 깃들 때까지, 자신을 가다듬으며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정덕십년명 석조지장보살좌상^{正德十年銘 石造地藏菩薩坐像}, 조선 1515년, 전체 높이 33.4cm, 보물, 신수14491/국립중앙박물관 허형욱 큐레이터 추천/공공누리 공공저작물

16세기 기년작 불교조각의 귀한 사례

16세기에는 기년작뿐 아니라 확인된 상의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불교조각이 전기에서 후기로 변모하는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1515년(중종 10) 작 석조지장보살상은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16세기의 작품으로서 그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에 보물(옛 지정번호 보물 제132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장보살상과 조성기

이 지장보살상^{地藏菩薩像}은 특이하게도 바위처럼 울퉁불퉁한 대좌 위에 앉아있습니다. 한 덩어리의 돌을 깎아 만들었고, 대좌에는 붉은색을 몸체에는 금을 입혔습니다. 머리에는 두건을 썼는데, 귀를 드러냈으며 귀걸이를 착용하였습니다. 몸에는 가사(대의)를 걸쳤고, 그 안쪽에 별도의 윗옷과 하의를 입은 것이 확인됩니다.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얹은 왼손에는 지장보살의 상징인 둥근 보주^{寶珠}를 지물^{持物}로 들고 있습니다. 머리가 커서 신체 비례는 4등신에 가깝습니다. 어깨가 좁고 하체가 빈약하여 전체적으로 위축된 몸의 표현은 조선시대 불상의 양식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지장보살좌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대좌 뒷면에 8줄 49자로 새겨진 조성기^{造成記}입니다. 명문^{銘文}은 상의 제작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알려 줍니다.



정덕십년명 석조지장보살좌상 뒷면 대좌의 명문 부분

〈원문〉

正德十年乙亥三月/ 造成觀音地藏施/ 金順孫兩主順大保/ 金貴千兩
主宋和兩主/ 畫員節 學山人信■/ 助緣比丘/ 智日/ 法俊仁■ (/는 줄
바꿈 표시, ■는 판독이 어려운 글자)

〈해석〉

정덕 10년(1515) 을해년 3월에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을 조성하였다. 시주자는 김순손 부부, 순대, 김귀천 부부, 송화 부부이다. 상을 만든 이는 화원^{畫員} 절학과 산인^{山人} 신[■]이다. 함께 도운 승려는 지일, 범준, 인[■]이다.

이 상이 앉아있는 울퉁불퉁한 형태의 대좌는 단순한 바위라기보다 『지장보살본원경』의 주요 무대로 나오는 도리천의 아래, 즉 수미산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이 상의 시주자들은 조성기에 구체적인 발원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죽은 자의 추모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사후 지옥으로부터의 구제뿐만 아니라 이승의 삶과 관련된 무언가를 기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음과 한쌍으로 조성하였으니 방광보살상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지장 신앙 자체에는 현세 이익적인 측면이 내재돼 있습니다. 이 지장보살상 제작에 시주한 부부들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 상상의 나라를 펼쳐 봅니다.

은퇴한 해녀

오대혁

동국대학교 고전문학 전공
 시인, 문화비평가
 논문 및 저서 <원효설화와 미학>
 <금오신화와 한국소설의 기원>
 공동 시집<시의 끈을 풀다>

물질 은퇴식을 한 귀덕리 해녀
 김유생 강두고 할머니
 빗창도 놓고 태왁도 놓은 채
 비단 물빛 공단 물속 알록달록 산호도 없는
 난생처음 초청받아 국회 회의실이란 데 앉아
 해녀가 계속될지 어떨지 포럼을 듣는다

마지막 물질을 끝내고 할머니는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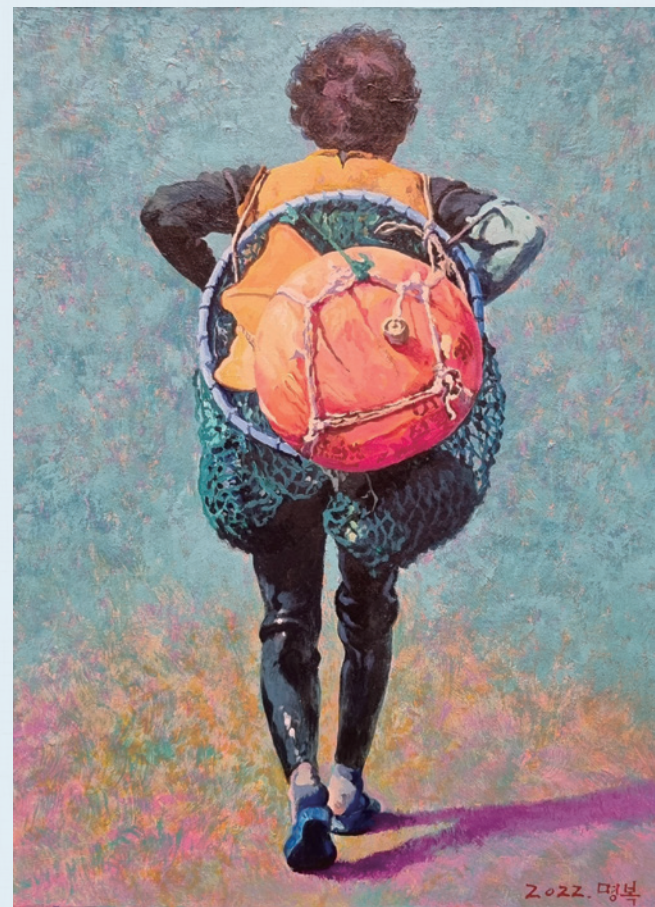
나 죽거들랑 불 소랑 바당에 뿌려도라
 죽어서도 물질 허멍 살키여*

살아남으려 바다에 뛰어들었던 비바리
 아흔 고개를 넘고서도
 미역 따고 전복 따기 물속에서 할 순 있어도
 망시리 들고 물 밖으로 걸어 나오기 힘겹다며
 은퇴 소감이란 걸 말했다지만

어룽대는 햇살 머금은 물꽃 피어난 바다
 죽음을 넘어선 숨비소리 왈자한 바다
 사슬처럼 그들을 짝 붙들고 있는 바다

죽어서도 가고픈 바다를 떠올리며 할머니는 속삭였다

나 죽으면 바당이 살아 있을지 모르키여
 죽어서 물질 허멍 못 살지도 모르키여



* 나 죽거들랑 불 살라 바다에 뿌려달라 죽어서도 물질 허멍 살린다

여행에서 배운다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하루 남짓, 그것도 쏟아지는 비를 핑계로 숙소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긴 시간이 아니어도,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마냥 즐겁고 행복했다. 이번 여행은 1주일 전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번개 텅'이었다. 고향에서 함께 나고 자라 함께 늙어가는 우리는 '가슴 떨릴 때' 다니자며 여행으로 대동단결, 몇 년간 열심히 곳곳을 누비고 다녔건만 오호, 애재라! 연초에 친구 A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올해는 그야말로 개점휴업, 한 번도 여행길에 오르지 못했다. A가 깁스를 풀고 재활을 시작한 후에도 선뜻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차일피일하던 차에 느닷없이, 갑자기 결정하게 된 일이라 그럴듯한 여행지를 알아볼 겨를도 없이 번갯불에 콩을 구웠다.

아직은 거동이 불편한 A를 위해 친구네 집에서 40분쯤 떨어진 곳에 숙소를 잡고 '수다'라는 거창한 테마도 정했다. 오랜만에 얼굴 보면서 수다나 떨자는 말에 가장 미안해한 건 A였다. A는 자신을 위한 배려에 고마워하면서 그래도 어디 한두 군데는 천천히 둘러보자고 했지만 우리는 어디를 쏘다니지도 않고 무얼 할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숙소에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 수다

삼매경을 즐겼다. 물론 약간의 강박 같은 것도 있었다. 여느 때 같으면 여기저기 둘러보느라 저녁때가 다 돼서야 숙소로 향했을 텐데 이번엔 집 앞까지 가서 A를, KTX를 타고 오는 B를 픽업해 숙소로 직행한 터라 뭔가 허전한 느낌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것을 생략하고 보니 또 다른 즐거움이 있었다. 너른 창 가득 빛속에 흔들리는 자작나무 숲만 봐도 좋았다. 앓든 늙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흥도 없고 사심도 없는 마음으로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웃음도 되고 눈물도 되는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 이만하면 이번 여행도 합격점이다.

이렇듯 나는 여행을 좋아하고 자주 하는 편이다. 친구들과 함께할 때가 많지만 혼자 하는 여행도 마다하지 않는다. 휴가 인파가 넘쳐나는 한여름이나 도로가 얼어붙는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두 달에 서너 번쯤, 대개 2~3박 일정이니 어림잡아 1년에 한 달쯤은 집을 떠나 사는 셈이다. 이런 나를 두고 어떤 이들은 멋지게 산다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역마살이 단단히 낀 것 같다며 염려 섞인 시샘을 내비치기도 한다. 여행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배우고 얻었는지 묻는 이들도 있고, 사진이나 글로 여행 기록을 남기라고 권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여행지에서 굉장한 것을 발견한다거나



심오한 무언가를 깨닫지도 못했거니와 아예 그럴 시도조차 하지 않는 나의 여행 방식이 너무 소모적인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SNS를 잘 활용해서 여행 이야기로 큰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내 여행 방식은 그것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낭만적으로는 순도 100%라고 걸뭇을 부러볼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건질 게 하나도 없는 맹탕이니 말이다. 지친 일상을 쉬고 싶어서도, 활력을 재충전하기 위해서도, 무엇을 배우거나 느끼고 싶어서도 아니니 남들과는 여행의 목적부터가 다르다. 아니, 다르다기보다는 목적이 없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다. 가지 않은 곳을 가보고 싶다는 바람은 있지만 여행은 그저 여행일 뿐, 나만의 추억이면 족하다. 굳이 큰 의미를 찾다가 발목을 잡힐세라 마치 성지처럼 돼버린 맛집도 찾지 않고, 사진도 많이

찍지 않고, 무엇을 기록하느라 골머리를 앓지도 않는다. 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는 것은 수십 장의 사진도 몇 편의 글도 아니다. 만나는 것들을 눈에 담고 마음에 담으면 그만이다. 처음 마주친 풍광은 낯설지만 아름답고, 때로는 처연하다. 조붓한 골목길을 걸으며 만난 삶의 흔적은 푸근하면서도 치열하다. 누구와 함께라면 함께인 대로 나누고, 혼자라면 혼자인 대로 마음속에 부는 바람을 따라가면 된다.

누구와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언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 여행의 결이 달라지고 즐거움에도 큰 차이가 나지만, 어떤 여행이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많은 것을 보고 느끼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이 누구인가를 잠시 잊어버리는 것도 여행자의 미덕이 될 수 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취하고 싶었던 것, 누리고 싶었던 그것들과 멀어지기 위해 떠나는 것이 여행인 지도 모르겠다. 잠시 길을 잃어도 좋다. 문득 마주친 풍광에 매료돼 발길을 멈추기도 하고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머물게 되면 또 어떤가. 그게 여행의 묘미이자,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만을 향해 숨차게 달려가는 자신에게 일러주는 여행의 가르침은 아닐는지. 어떤 여행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부디 저마다의 여정이 새롭고 충만하기를. 결과

의 성패보다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행복한 인생 여행이 되기를.

여행(Travel)이라는 말이 고생(Travail)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여행과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 완벽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고난과 역경이 따르기도 한다. 다른 사람과의 불협화음도 감내해야 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직면해야 할 때도 있다. 그 때문에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기도 한다. 행복에 대한 말씀이기는 해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도중에 여행을 잘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러하다. “행에서 덕성(德性) 어질고 너그러운 성질이 드러나고, 맑고 평온한 마음에서 지혜가 드러난다. 인생이라는 미로를 안전하게 걸어가려면 덕성의 인내와 지혜의 빛이 필요하다.”라고도 하셨다. 그 말씀에 담긴 큰 뜻을 여행이라는 작은 범주에 놓고 보면 인생이든 여행이든 결과보다 더 소중한 게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살아가는 순간 순간이 여행이고 그 조각들이 모여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완성한다면... 꼭 길을 떠나지 않더라도, 거둬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을 여행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 어질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말이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 돌아오지 않을 시간 앞에 선 여행자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나를 불렀나?”

법상인 전수

부산 덕화사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지내왔던 시간 안에서 겪었던 여러 다양한 경험과 관계를 되짚어 보면, 닿았던 인연의 끈이 그리 간단치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삶이든 살아온 전력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람으로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풀벌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길가에 자리 잡은 한 송이 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귀엽고 조그만 산짐승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무엇으로든 우리는 살아왔고 그 결과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나온 여러 생^ㅅ을 관통함으로써, 우리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이 아주 처음이라 그 전의 경험이 아예 없다면 타인의 처지에 대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여력조차 되지 않겠지만, 생^ㅅ들이 축적됨으로써 이전에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지금의 내 안에 저



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켜켜이 저장되어 있는 그 행위들은 지금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영향을 끼칩니다. 살며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괜히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별 이유도 없이 정이 가지 않고 함께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까닭 없이 그저 마음이 가고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유독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전생의 내가, 혹은 전

전생의 내가 겪은 여러 경험과 인연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는 삶 안에서 여러 인연들과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때로는 깊게 관계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스치듯 지나치는 인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경험은 우리가 살면서 하게 되는 수많은 생각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슬한 생각들 중에는 쓸모 있는 것도 있겠지만 태반은 내다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걱정들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생각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힘겨워합니다.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들기 시작한다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은 힘이 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고달프게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세상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무수히 많은 이유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름답게 생기고 싶은데 아름답게 태어나지 않았고, 부자로 살고 싶은데 돈이 많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고 싶은데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식을 키우다보면 더욱더

그런 경우가 많게 느껴집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따라와 주면 좋겠는데, 꼭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여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자식을 잘 키웠다고 바라는 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다고 할지언정 내면을 들여다보면 말 못할 사연과 함께 해결될 수 없는 온갖 걱정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 보면 속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들어있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어느 산 중턱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 나무꾼의 나날은 늘 똑같았습니다. 눈을 뜨면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해가 떠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나무를 다루는 일을 합니다. 해가 누엿누엿 질 무렵에는 그간 했던 나무들을 등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무꾼은 매일 이 일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는 때까지 언제나 같았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쳇바퀴 돌 듯 반복적인 일을 하며 사는 것과 같이 이 나무꾼에게도 하루하루는 그저 같은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몹시 지친 나무꾼은 더 이상의 고단함을 버티지 못하고 풀밭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기껏 해온 나뭇단에도 환멸을 느끼

고 모두 다 팽개치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드러누워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죽음의 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잘도 데려가면서 왜 나는 데려가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매일 무거운 나뭇짐만 짊어지다가 하루하루를 다 보내버리게 되는 것일까? 매일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또 나뭇짐을 어깨에 지고 내려오다니. 아, 정말이지 나는 왜 이런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늙고 병들기 직전인데 죽음의 신은 무심하기도 하지, 나를 데려가지도 않네.”

나무꾼의 한탄이 끝날 무렵, 죽음의 신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나를 불렀나?”

죽음의 신이 나무꾼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났습니다. 그간 했던 지겹다는 생각, 괴로웠다는 생각, 왜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 등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앉아 말했습니다.

“제가 부르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용건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저는 다만 여기 떨어져 있는 나뭇단을 제가 짊어지려고 하니 오늘따라 무척 무겁게 느껴져서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불렀습니

다. 그 이상의 용무는 절대 없습니다.”

나무꾼은 그렇게 다시 나뭇단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설화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내일과 같은 모레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반복적인 생활이 지치고 고단하고 힘이 든다고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음의 신이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특하면 이렇게 지치는 삶이 반복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할지도 모르나, 그렇게 말하는 깊은 마음 안에는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의도치않게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는 때를 다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꼭 그럴 때면 한 가지 좋지 않은 일의 뒤를 따라 또 다른 나쁜 일이 생기곤 합니다. 어떤 때에는 숨통을 조여 오듯이 나쁜 일만 연이어 주구장창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고는 못 배길 만큼 고통이 끝없이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이겨내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발생한 아픔이고, 고난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얻히는 인연이나 스치는 인연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원망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 숙제

지장 스님

청주 용화사 연수원장

芝蘭種不榮 ‘난초를 심었건만 꽃피우지 못하고
 荊棘剪不去 가시덤불 베었지만 제거되지 않았네.
 二者無奈何 이 둘을 어찌하지도 못하고
 徘徊歲將暮 어물쩍거리고 빈둥거리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구나!’

이 시는 중국 송나라 때의 시인 ‘소옹’의 <감사음>입니다. 난초의 꽃은 선한 마음이 습관화되는 것이고, 가시덤불은 나쁜 습관 혹은 번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를 볼 때마다 나는 과연 숙제를 제대로 잘하고 사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러다 그냥 인생이 흑 가버리는 것은 아닌가?

좋은 마음은 습관이 되게 하고,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은 어찌면 우리에게 미완의 숙제로 죽는 날까지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숙제가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냥 철부지입니다.

숙제가 부담이 될 때 다시 ‘소옹’의 또 다른 시 <청야음>을 생각합니다.

月到天心處 ‘달은 하늘 한가운데 있고
 風來水面時 바람은 불어와 수면 위에 있네.
 一般清意味 이러한 깨끗한 의미를
 料得少人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마음은 달처럼 밝고 바람은 불지만 흔들리지 않는 수면처럼 된다면 아마도 숙제를 잘 끝낸 경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숙제를 다 끝낸 상태를 자주 상상합니다.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상상하는 편이 어렵고 힘들다고 투정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잘 가고 있다고 저 자신을 독려하고 위안합니다.

숙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나 자신을 비추어 볼 거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주 보는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누가 숙제 검사 해주면 좋겠습니다.

노인의 경험이 자신이 되는 사회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숭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교수
 『E美지』& 『숏대평론』 발행인
 저서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상당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젊었을 때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77살이 돼서 은퇴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쉬는 날 없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자 시간이 남아돈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는 다른 노인들 처럼 노인센터에 갔지만 처음에는 적응을 하지 못해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지루했었는데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귀게 되어 그와 대화를 나누고 체스를 두며 하루를 보냈다. 그러저럭 무료함은 덜 수 있었다. 그가 81살이 되던 해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왜 혼자 계세요?”

항상 둘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체스를 두었기 때문에 노인센터에 찾아오는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친구가 아프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해주며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던 노인을 자원봉사자는 미술실로 안내하며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다.

“난 한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늙으니까 손이 떨려서 붓을 잡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소”

노인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는 정말 그림에 관심이 없어서

돈이 많아도 그림 한 점을 구입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달리 할 일이 없던 터라 미술실에 있는 종이와 물감으로 낙서를 하듯이 그렸는데 물감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서 채색에 재미가 생겼다.



그림=헤리 리버만

아픈 친구가 노인센터에 오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그는 매일 그림 연습을 했다.

이렇게 해서 완성한 작품이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사갈’인데 이 작품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 노인은 81살에 시작한 그림으로 100살이 넘도록 화가로서 명성이 높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해리 리버만이다.

해리 리버만은 1880년 폴란드에서 태어나 29살에 미국으로 이민와서 하루 종일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맨해튼에 과자가게를 내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되어 제조업 회사까지 설립하여 돈을 많이 번 자수성가형 사업가이다.

해리 리버만은 81살에 노인센터 미술실에서 미술지도 교사에게 배운 실력으로 그린 작품으로 101살 때 22회 개인 전시회를 가졌다. 그는 강렬한 원색으로 현실과 이상을 넘나드는 신비로운 화풍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현재 그의 작품은 미국의 유명한 미술관 몇군데에 영구 소장품으로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해리 리버만은 103살인 1983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붓을 놓지 않을 정도로 그림 그리기를 정말 좋아했던 화가인데 이런 말을

남겼다.

“몇년을 더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이로 한계를 만든다. 우리 사회가 너무 일찍 사람을 일로부터 은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해리 리버만 이야기를 듣고 나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생긴다.

불교에서 노인의 의미는 육체적으로 노쇠해 있는 사람이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는 사람 즉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불경에서는 신체적인 변화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노인을 언급하고 있다. 노인은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지만 신체적으로 노쇠한 상태라서 보호해 드려야 할 존재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노인의 신체적 노쇠만 보고, 정신적인 지혜를 보지 못해서 노인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해리 리버만처럼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하면 큰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리^{自利}와 이타^{利他} 무엇이 먼저인가?

하현주

동국대학교 선학 전공
서울대학교 심리학 박사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인 상담심리사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철학자인 양주는 위아^{爲我}설을 주장해 당대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당시 난립했던 제자백가들은 저마다 천하를 구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았다. 이를 보며 양주는 천하를 주더라도 정강이의 털 한 올과 바꾸지 않을 만큼 자기 자신을 천하의 제일로 여기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며 살아가라는 사상을 펼친다.

한편, 묵자는 하늘^天이 만민을 겸애^{兼愛}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도 서로 겸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만 위하는 사리사욕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리와 이타 중 무엇이 먼저인가에 대한 답론은 현대 심리학으로도 이어진다. 자비는 타인을 향한 것이라는 상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미국의 심리학자 네프(Neff)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자기자비(self-compassion)는 남방 불교에서 자애관을 닦을 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애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에 착안한 심리학적 구성개념이다. 자기자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친절함, 인



간의 보편성, 마음 챙김의 3가지 요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인간이 나약하고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점에 공감하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도 타인과 마찬가지로 내면의 사랑과 친절을 보내는 수용적인 태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003년에 창안된 이래, 자기자비는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가장 주목받는 심리학 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자기자비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분노, 수치심, 자기 비난 등의 부정적 상태를 감소시키고, 행복, 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상태를 증가시킨다는 다수의 치료적 효과들이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자기자비는 자기 중심성에 의해 왜곡된 자기비난, 즉 자신만 부적절하고 부족하다는 평가로부터 벗어나, 타인들도 자신처럼 고통받고 있으며, 인간은 보편적으로 취약함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자기 자비가 긍정 정서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타인을 향한 자비로도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자비에 있어서 자리와 이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자기자비는 불교의 무아無我설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자타불이自他不二의 관점에서, 자리와 이타는 둘이 아니며, 오히려 자타평등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티데바는 <입보리행론入善提行論>에서 자타의 구별 없이 자비심에 의해 모든 유정을 구제하는 것이 보리심을 추구하는 이유라고 설하며, 그 근거를 무아에 둔다. 고통의 주체는 본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의 입장에서는 자타의 고통이 구별되지만, 승의의 입장에서는 자타의 구별이 없다는 것이다.

집에 불이 났는데 내 방의 불만 끄는 것이 이기주의라면, 이타주의는 제 몸 타는 줄도 모르고 다른 방의 불부터 끄는 것과 같다. 자리아타란 먼저 자기 몸을 불로부터 지키되, 자타 구분

없이 불을 꺼야 나와 남이 모두 안전할 수 있는 이치와 같지 않을까?

번뇌의 불은 내 한 몸 지키면 당장은 안전한 것 같아도, 금방 옆에 있던 불길이 덮쳐오기 마련이다. 하루하루 내 마음의 불을 먼저 끄되, 타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길이 꺼지도록 함께 지켜봐 주어야 한다.

그러나 타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은 내 고통에 접촉했던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보인다. 또한 타인의 고통을 함께하는 자비의 경험 속에서 자타의 구분이 융해되는 순간이 일어난다.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으나 충분히 의식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했던 상처들이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며 함께 위로받는다.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과거 혹은 현재의 자신을 대입하고 동일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속에서 우리는 결국, 누구의 고통인지 모를 고통이라는 현상을 함께 위무하고 치유해 나가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내 고통에만 함몰되어 끄끙 앓고 괴로울 때보다, 타인의 고통을 보고도 이리저리 피하려고 할 때보다, 함께 마주할 때 그 고통은 전보다 덜하다는 것이다.

AI 시대 불교에 대한 단상

남해 정사

불교총지종 통리원 사무국장

인간과 AI로봇의 공존을 다룬 “크리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AI로봇이 깨달음을 얻은 스님으로 나온다. 이 영화를 보면서 미래 불교는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고민이 깊어지게 되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자신이 주도한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4I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클라우스 슈밥은 자신의 저서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 자동차, 양자컴퓨팅, 나노테크 등과 같은 영역에서 이뤄질 기술 혁신(breakthroughs)을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보았다.

제4차 산업 혁명은 단순히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하고 스마트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훨씬 넓은 범주까지 아우른다.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나노기술, 양자 컴퓨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약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적 영역과 디지털 영역 그리고 생물학적 영역이 상호교류하

는 제4차 산업혁명은 종전의 그 어떤 혁명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존재의 이해와 공존에 대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AI로봇의 작업 대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인간의 삶의 환경변화, 인간과 AI로봇의 공존, 인간과 복제 인간의 공존, 유전자 조작에 따른 생명윤리 등 여러 과제를 지니고 있다. 특히 종교의 교화 방법론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수많은 윤회를 거듭하는 역사 속에서 인격을 완성시켜 왔으며, 높은 수준의 수행 단계를 통해 지혜의 통찰을 완성해 왔다. 생물학적인 진화의 관점에서 지식과 지혜의 습득과 기계적인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지식 정보의 습득이 동일한 결과와 동일한 자의식이 나올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인간은 대상에 대해 상상적 이해와 실체적 이해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말아야식과 아뢰야식, 무아야식 등 진정한 내면적 이해를 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AI로봇은 기계의식과 언어의식 단계를 통해 인간의 지식적 체계와 같거나, 더 높은 수준까지 발전하겠지만 과연 인간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만큼의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을



AI로봇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지 AI로봇이 직접 수행하여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AI 시대 불교를 준비하는 불자들은 AI가 바른 불교의 지식을 습득하여 바른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불교경전, 부처님의 가르침, 수행법 등을 AI 기반 플랫폼으로 잘 정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AI 챗봇과 가상 AI스님이 바른 명상과 바른 수행을 지도할 수 있도록 수행체계와 수행단계, 그리고 수행 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언어적으로 잘 정리해야 하며, 미래에도 불교의 전통과 의식, 그리고 불교 문화유산이 잘 보존,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까? 인간의 모든 행복은 마음에서 나오고, 모든 불행 또한 마음에서 나온다. AI로봇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나올까?

불교에서 승직자의 중요한 역할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수행적 가르침의 제공과 중생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가르침과 조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래에 AI가 발전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역할을 AI 챗봇과 가상 AI스님이 대신하여 인간 승직자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직접 수행을 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일 것이다.

탁상달

시인, 문학평론가
전 동해중학교 교장

‘절영지회 絶纒之會’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절영지회 絶纒之會’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갓끈을 자른 연회’라는 뜻이지만 이 고사성어에 담긴 가르침은 ‘남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해주면 훗날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춘추시대 중국 초나라 초장왕은 고된 전투를 겪고 반란을 평정한 후에 공을 세운 신하들을 치하하기 위해서 연회 宴會를 베풀었다. 신하들을 무척이나 아끼던 초장왕은 이 연회에서 특별히 자신의 총희 寵姬인 허희를 불러내어 군신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였다.

이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와 연회장의 촛불이 모두 꺼지고, 장내가 칙흑처럼 어두워졌다. 그때 그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의 앙칼진 비명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어떤 무장이 초장왕의 총희인 허희의 아름다움을 탐내다가 술기운을 빌어서 다가가 허희를 더듬었던 것이다. 이때 허희는 자신의 몸을 더듬은 한 무장의 갓끈을 손에 잡아당겨 쥐고서는, 급하게 왕에게 말하였다.

“방금 술을 따르는데, 어떤 사람이 촛불이 꺼지자 법도 法道를 어기는 짓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그 사람의 갓끈을 잡아당겨 두었으니, 대왕께서는 얼른 사람을 시켜 촛불을 켜라 명령하시고 어느 간덩이가 큰 자의 짓인지 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왕께서는 어서 불을 켜서 그 무엄한 자를 처벌해 달라고 했다.

초장왕은 자신의 후궁을 희롱한 무례한 신하가 꽤 씹히고, 자신의 위엄이 희롱당한 것 같은 노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 왕은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이 자리는 내가 아끼는 이들의 공 功을 치하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이다. 이런 일로 하여금 처벌은 온당치 않으니 이 자리의 모든 신하는 내 명을 따르라! 지금 각자 자신이 쓰고 있는 갓의 갓끈을 모두 잡아당겨서 없애버리도록 하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일은 이 자유로운 자리에 후궁들을 들게 한 나의 경솔함에서 빚어진 일이니 불문토록 하겠다.”

그 시대의 분위기에서 왕의 여인을 희롱한 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한 역모 逆謀에 해당하는 불경죄로 죄인은 물론 온 가문이 능지처참 凌遲處斬을 당할 수 있는 중죄였다. 그렇지만 왕은 신하들의

마음을 달래는 치하^{致賀}의 연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로 용인^{容認}한 것이다.

몇 해 뒤에 초장왕의 초나라는 진나라와 나라의 존폐가 달린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그 전쟁에서 초장왕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왕의 앞으로 나서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초나라의 수호신이 되어 온몸이 붉은 피로 물들며 흡사 지옥의 야차^{夜叉}처럼 용맹하게 싸워서 왕을 구하고 초나라를 승리로 이끈 장수가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초장왕은 그 장수를 불렀고 용상에서 내려와 그 손을 감싸 쥐고 공로를 치하하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맹하게 싸운 연유를 물었다.

장수는 큰절을 올리면서 이르기를 “몇 해 전에 있었던 연회 자리에서 술에 취해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저입니다. 그때 폐하께서는 소신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신은 새롭게 얻은 제 목숨은 폐하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고, 오늘 이 전장에서 제 목숨을 폐하를 위해서 바칠 각오로 싸웠습니다.” 라며 용서를 구했다.

우리는 이 고사를 통해서 얻는 가르침은 초장왕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 일이 자신의 경솔함에서 빚어진 일임을 인정한 것은 가히 대인^{大人}다운 사고의 발상임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일어난 일을 사실 그대로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더는 자의적인 확대해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깊은 배려심의 발로^{發路}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다.

우리는 누굴 탓하는 것도, 타인의 잘못을 논하는 것도,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또는 자신의 단점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마음도 가지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의 단점을 고치기에 힘쓰자는 권고^{勸告}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다.

『잡보장경』에는 노인을 버리는 나라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 나라에서는 사람이 늙게 되면 누구나 멀고 먼 곳에 데리고 가서 버리는 법도가 있었다. 그 나라에 한 대신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늙자 관습에 따라 아버지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효심이 지극한 이 대신은 아버지를 내버릴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국법을 어기고 땅속 깊은 곳에 밀실을 만들어 그곳에 아버지를 감추어 모셔두고 효도를 다 하고 있었다.

때마침 그 나라에 임금과 온 백성이 신봉하던 천신이 내려와 수수께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모두 파멸시켜 버리겠다고 국왕을 위협하였다.

“뱀 두 마리가 있다. 이 뱀의 암컷과 수컷을 가리어라.”

이야기를 들은 왕은 놀라 신하들과 의논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속이 탄 왕은 궁정의 대신들에게도 이를 풀지 못하면 모두 목을 베겠다고 호령하였다. 부모를 숨긴 그 대신은 이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으므로 마지



막으로 아버지를 뱉고자 굴속으로 갔다. 아버지는 아들의 근심스러운 표정을 보며 물었다.

“네 얼굴빛이 좋지 않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대신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다. 첫째, 부드러운 형질 위에도 뱀을 놓아두어라, 그때 이리저리 거칠게 움직이는 놈이 수놈이고, 움직이지 않는 놈은 암놈이다.”고 가르쳐 주었다.

대신이 실제 실험을 해보니 과연 그러하므로 국왕에게 즉시 아뢰었다.

이것을 안 천신은 또 국왕에게 “여기 커다란 코끼리가 있다.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를 물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아버지는 다 음과 같이 방법을 알려주었다.

“먼저 커다란 연못에 배를 띄우고 그 배에 코끼리를 태워라. 배 가 어느 정도 잠기면 그 부분에 금을 긋고 코끼리를 내려라. 무게 를 쟈 수 있는 쌀섬을 그 배에 다시 실어서 금을 그어놓은 부분까 지 물에 잠기면 그 쌀섬의 무게가 코끼리의 무게다.”

대신은 바로 이것을 아뢰어 왕은 난관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자 천왕은 정사각형으로 된 향나무 판자를 보이며, “이 나무 의 어느 쪽이 위쪽인가”를 질문했다. 국왕은 답을 얻지 못하여 다 시 공고를 내고 노심초사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신의 아버지는 역시 “그 나무를 물에 담그어 보면 위, 아래를 구분할 수 있다. 뿌 리는 아래로 가라앉고 가지는 위로 떠오른다.”

계속되는 정답에 천신은 다시 색깔과 크기가 똑같은 두 마리의 말을 보이면서 어미와 새끼를 구분하라고 하였다. 역시 대신의 아 버지는 “말에게 풀을 먹여 보는 것이 좋다. 어미는 풀을 새끼앞에 밀어 놓고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한 바가지의 물이 큰 바닷물보다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대신에게 가르쳐주었다.

“맑은 마음으로 한 바가지의 물을 떠서 부모나 병자에게 베풀면 공덕은 영구히 없어지지 않지만 큰 바다의 물이 많다고는 하나 언젠가는 다할 때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천신은 크게 만족하며 나라를 보호해 줄 것을 약속했다.

국왕은 대신에게 물었다.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는가? 그대 는 나라를 구한 충신이다. 어떤 것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실은 국법을 어기고 지하에 모셔둔 아버지로부터 그런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러하니 차후론 노인의 부양을 허락해 주십시오.”라 고 요청했다.

왕은 대신에게 후한 상과 더 큰 벼슬을 내렸으며, 이후부터 노인 을 버리는 법률을 폐지하고 늙은 부모에게 효를 지극히 다하도록 명하였다.

무력하고 위태로운

유소림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공쥐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 등

새벽 유치원은 컴컴했다. 그 시간에 유치원에 간 이유는 단 하나. 진열장 속의 곰 인형을 실컷 뜯어보고 싶어서였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나’라는 것은 ‘내 것’부터 시작한다. 꼬마들이 “우리 엄마야!”라던가 “내 거야!” 하는 소리를 곧잘 하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란단다. 나에게도 그 ‘나’는 그런 ‘애착’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중년기가 다 흘러가도록 그 ‘나’는 건재하였다.

그런데 그날이 찾아왔다. 50대가 시작되고 산골로 들어왔을 때였다. 명상에 대한 책을 읽다가 퍼뜩 기막힌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 ‘나’는 ‘나’가 원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 원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껏 이 ‘나’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나’는 인생의 처음과 끝, 어느 쪽에도 주도권이 없었다. 한참을 책상 위에 고꾸라지듯 엎어져 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무력감은 다시 습관 속에 잊혀졌다. 그러다 동사섭이라는 공부모임과 인연이 되어 스승의 말씀을 들을 때였다. “아_我는 나를 말하고, 법_法은 이 세상 전부를 말하는 것



이지요.” 그 ‘아’가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켰다. 아! ‘나’를 빼곤 그 전부가 무한한 우주인데 그렇다면 이 검불 같은 ‘나’가 무한 우주와 대치하고 있었다는 것이구나! 그동안 단 10초만이라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무한우주의 무게로 압사당했어야 했다. 아니면 수십 번이고 정신병원에 실려 갔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껏 멀쩡하다는 것은 이 ‘나’가 거의 무뇌아 無腦兒 수준이었다는 뜻이다.

예전의 충격이 다시금 살아났다. 아무런 주도권이 없는 ‘나’. 그리고 무한우주와 대치하고 있는 검불 같은 ‘나’. 그토록 무력하고 위태로운 것이 ‘나’라면 도대체 삶이란 것은 무어란 말인가. 행여나 기적적으로 무언가에 매달려 있다 한들 그것은 결코 삶일 수 없다. 그랬다. 이미 2,600년 전의 스승이 그리 말씀하였고 금생의 스승도 귀가 닳도록 말씀하시듯, 그따위 ‘나’라는 것은 도무지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무능한 것이 어찌 삶을 이끌고 갈 수 있겠는가 말이다.

스승의 안내를 따라간다. 연기적으로 작동하는 이 존재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찰나무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하니 그 어디를 끊어서, 그 어디를 고정하여 나다, 너다 하겠는가. 그 엉뚱한 실체들을 내려놓고 그냥 있어 보라. 그냥 깨어서 그때의 네 마음을 경험해보라. 느껴보라. 너와 나의 경계선이 사라진다. 모든 이름이 사라지고 그냥 하나로 트인다. 둘이 아니다.

티끌만큼도 더할 필요 없이 이미 스스로 온전하다. 욕구는 절로 사라져 아무 걸림이 없다. 삶이라는 신비를 살고 있는 것은 ‘나’라는 검불이 아니다.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한정되어 있지 않아 걸릴 바가 본래 없는 무한^{無限}이다.

총지사 서원당의 본존 “옴마니반메훔”의 왼쪽에는 금강계만다라가 있습니다. 그 만다라 불단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문양이 있습니다.

① 금강 바라밀 보살

왼쪽 불단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문양은 금강 바라밀보살의 삼매야형입니다. 금강바라밀보살은 대일여래의 동쪽에 있는 보살로서 금강같은 법륜으로 중생들로 하여금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보살입니다. 즉 금강바라밀보살은 아축불의 속성인 ‘보리심의 활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보살의 삼매야형은 연꽃 위에 오고저를 세워 놓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오고저는 금강 같이 견고한 보리심을 상징하는데, 오고저가 세워져 있는 것은 보리^{菩提}를 일으키는 마음 [발보리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② 보 바라밀 보살

왼쪽 두 번째가 보바라밀보살의 삼매야형입니다. 보바라밀보살은 대일여래의 남쪽에 있는 보살로서 보생불의 속성인 ‘공



④ ③ ② ①
금강계 만다라 불단 문양

덕취(功德)의 활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남방 보생불의 시현(示現)인 보바라밀보살은 보리심의 활동으로 '무량의 복력(福力)이 일어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보살의 삼매야형은 연화 위에 외씨와 같은 세 개의 보배구슬이 올려져 있다는 점에서 보생불의 삼매야와 동일하나, 연화 위에 보배상자가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③ 법 바라밀 보살

왼쪽 세 번째가 법바라밀 보살의 삼매야형입니다. 법바라밀 보살은 대일여래의 서쪽에 있는 보살로서 '열반적정의 청정심(淸淨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법바라밀보살은 아미타불의 속성인 '청정지혜의 활동'과 '무한한 자비를 나투는 법열(法悅)의 활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보살의 삼매야형은 아미타불의 삼매야형과 마찬가지로 연꽃 위에 옆으로 눕힌 오고저를 올리고, 그 위에 금강독고저를 세우고, 독고저 위에는 활짝 핀 연꽃을 올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과 다른 점은 연화 위에 불경(佛經) 답는 상자[경계(經櫃)]

를 얹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경계(經櫃)는 법(法)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법바라밀보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보배구슬은 마니보주으로써 악한 병을 낮게 하고 독사(毒蛇)의 독을 해독하며, 탁한 물을 깨끗하게 하는 등, 일체의 재난소멸과 온갖 소원을 이루게 하는 불가사의(不可思議)한 힘을 지닌다고 합니다. 독고저 위의 연꽃은 본성청정의 열반의 경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④ 업 바라밀 보살 [갈마바라밀보살]

왼쪽 네 번째가 업바라밀보살의 삼매야형입니다. 업바라밀 보살은 갈마바라밀보살이라고도 하며, 대일여래의 북쪽에 있는 보살로서 '대정진(大精進)'을 일으키는 보살입니다. 즉 업바라밀 보살은 북방 불공성취여래의 속성인 '변화·창조의 활동'을 나타내고 있는 보살입니다.

이 보살의 삼매야형은 갈마금강저로서 '무한한 활동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마는 대정진을 나타내며, 갈마바라밀은 바로 끊임없는 창조의 활동으로써 우주 대생명이 작변화(作變化)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맹정진을 계속하여 그 성취를 원만케 하는 묘용(妙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정(有情)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인격적으로 표현한 것이 갈마바라밀이며, 그 묘용을 사물로 상징화한 것이 갈마저입니다.

08. 젓가락 사용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

식사 시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숟가락만으로 밥과 반찬을 먹는다.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어보자고 격려하자 젓가락을 잡는다. 엄지와 검지를 움직여 음식물을 잡으려고 하지만 놓친다. 식사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젓가락 사용에 거부감을 갖고 숟가락만 이용하고나 포크로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 원인

- 소근육 발달 지연으로 조작 활동이 어려운 경우
-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이 미숙한 경우
- 젓가락을 바르게 잡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경우
- 여러번 실패하여 젓가락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 지도방법

- ‘쓰기 도구로 그림그리기’, ‘집게로 구슬 옮기기’, ‘가위질 하기’, ‘점토 놀이’ 등 다양한 놀이나 활동을 통해 소근육 및 손의 협응력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한다.
- 젓가락 관련 도서, 영상물을 보여 주거나 이야기를 해주어 젓가락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젓가락 탐 쌓기’, ‘젓가락으로 숨 공 옮기기’, ‘젓가락 도로 만들기’, ‘젓가락 과일 꼬치 만들기’ 등 놀이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쇠 젓가락 보다는 발달 연령에 맞는 젓가락을 제시하고, 부모가 아이 또는 아이가 부모에게 음식을 먹여주며 젓가락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아이가 젓가락을 이용해 음식을 집다가 바닥에 흘리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 해주며, 스스로 젓가락질을 시도하면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한국전통등연구원

1996년 전통등연구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한
지전통등을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고
있다.



신문고 Shin Mun Go



PART 4 전통등 축제 Traditional Lantern Festivals

- I. 풍물놀이 Pungmul-Nori
- II. 추억의 놀이 Traditional Games
- III. 동물이야기 Stories of Animals
- IV. 바다 속 풍경 Underwater Story
- V. 춤 Dances
- VI. 서울빛초롱축제 Seoul Lantern Festiva

풍물놀이

풍물놀이는 우리민족의 신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놀이문화이다. 과거에는 마을의 화합과 연희를 위해 연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가락을 위주로 하는 사물놀이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구성은 팽과리를 치는 상쇠를 우두머리로 징, 장구, 북이 기본이지만, 소고와 태평소, 잡색 등이 가세하기도 한다. 전문연희집단인 남사당패에는 버나와 무동, 살판 등의 배역이 추가되기도 한다.



풍물놀이 Pungmul-Nori

지난 호 정답

해	탈	절			마		망	원	경
안			경	동	시	장			비
선	가	귀	감		멜		밤	마	실
	장			금	로			호	
효	자	손		부			울	가	미
	리			도		유		니	
이		세		사	도	세	자		허
목	련	존	자			차		여	수
구			전	문	가				아
비			거		사	발		루	비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㉓				㉒		②㉑			㉑
				③					
④		㉑				⑤			
				⑥㉑					
	⑦						⑧	㉒	
㉓			⑨			㉑			
⑩	㉒					⑪	㉑		㉑
			㉑		⑦				
⑫					⑬				
			⑭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가로 열쇠

- ①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고 이끄는 관세음보살의 다른 말
- ② 도로에서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자격을 내어 주는 것
- ③ 옷이나 몸에 묻은 때를 씻어 내기 위하여 비누를 문지르는 일
- ④ 열무로 담근 김치
- ⑤ 이미 결정된 사실
- ⑥ 사람이 심어서 기른 산삼
- ⑦ 나무에 박힌 가지의 그루터기
- ⑧ 결혼한 한 쌍의 남녀
- ⑨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인 산마늘의 다른 이름
- ⑩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
- ⑪ 이리저리 많이 구부러져 나 있는 작은 길
- ⑫ 그리 오래지 않은 동안에 상당히 많이 달라져서 전혀 다른 세상 혹은 다른 세대가 된 것 같은 느낌
- ⑬ 난방 시설이나 목욕탕 따위에 더운물을 보내기 위해 물을 끓이는 시설
- ⑭ 아주 많은 것들이 한데 뒤섞여 매우 어수선했

세로 열쇠

- ㉓ 철길 구간을 따라 달리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게 만든 작은 전동차
- ㉒ 비료를 뿌림
- ㉑ 운이 칠 할이고 재주나 노력이 삼 할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일은 재주나 노력보다 운에 달려 있음을 이르는 말
- ㉑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고 실리를 얻는 계략
- ㉑ 야채나 당면을 김에 싸서 튀김옷을 묻혀 튀긴 음식
- ㉑ 문인들이 서재에서 쓰는 네 가지 도구(붓, 먹, 종이, 베풀)
- ㉑ 장씨의 셋째 아들과 이씨의 넷째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이나 신분을 알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㉓ 세상의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하여 불과를 얻음
- ㉑ 진전이 없거나 막혀 있는 상태를 푸는 실마리나 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㉒ 주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사냥이나 전쟁을 할 때 쓰는 굽은 막대 모양의 무기
- ㉒ 세월이 가면 나이를 먹어 늙게 된다는 말, 00 00, 오는 백발
- ㉑ 다른 사람과 의견, 감정, 생각, 처지 따위에 대하여 서로 같다고 느끼는 부분
- ㉑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㉑ 잘게 부스러진 찌꺼기
- ㉑ 앞에 나서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사물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상반기 49일	양력
	오전 10시	진호국가불공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홍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홍파동)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미아동)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상봉동)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안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이평리)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양월리)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중성리)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다경길36-19 (하구리)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도남동)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심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금산리)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1971년 7월 26일 월요일, 갯날이다. 계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비가 왔다. 혼자 승배가 올겠다 생각하고 집에 오니 빨래를 걸어 놓았다. 장독 위에서 빨래를 붙잡고 정준이와 승배가 울어 이웃에 있는 사람이 걸어 주었다 한다.” 엄마의 옛날 가게부를 앨범처럼 다시 들여다 보다 어린 서른 살의 엄마가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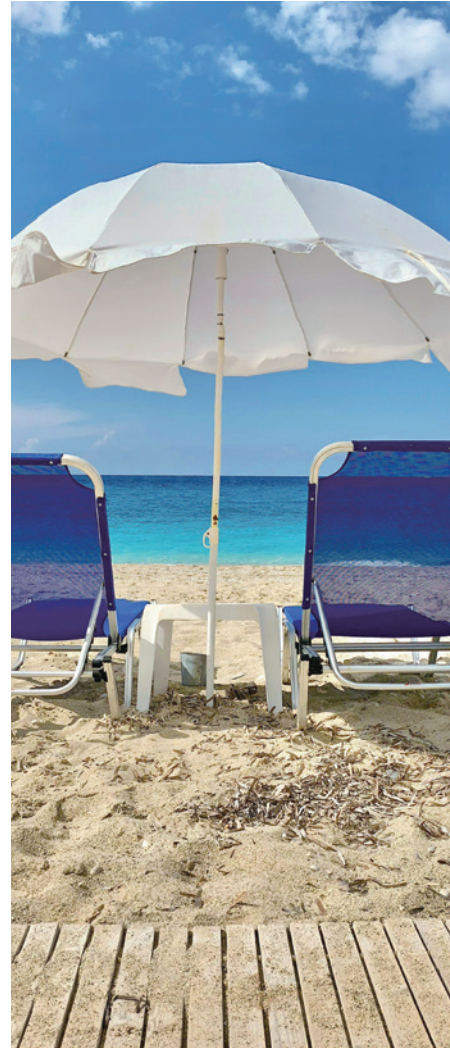


Photo by Marko Kelecevic at Unsplash

종일 비 올 듯

하늘과 바다가 겨안고 바람이 눈을 가리는 아침
마당까지 내려온 갈매기가 안개를 따라다니더니
방금 빨래 건조대를 넘어트렸다.

엄마는 갯돈 구하러 나가 여섯 살 큰 애 동생 둘보다
우두두 놀란 빗소리 장대 위 빨랫줄이 너무 높았다.

사는 건 쉽지 않다고 손이 닿지 않는 장대 위에서
비 맞는 빨래들 걸음마 떼 막내는 문지방에 걸렸다.

엄마가 젖은 머리로 돌아왔을 때
빨래와 아이들은 널부러지고
꼭꼭하게 챙긴 모자란 갯돈은
늘 그렇듯 장롱 밑으로 굴러 들어갔다.

해가 떴는데 비오는 호랑이 잔칫날
기름 냄새도 없이 단칸방은 킁킁하다
엄마는 전화통 붙잡고 아이는 더 어린 동생을 돌보는
오늘도 종일 비 올 듯 한 백 년 젖을 듯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남 혜 법 공 보명심 안한수 우 인
유재꽃 이수영 이안성 이혜성 자선화 정건호
총지화 한철수

(사)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일동(무순)

지회) 박차봉 강영철 박영중 조덕제 옥장윤
윤병재 김갑태 박종한 김상길 김인규
황규철 이정식 김영옥 이금숙 여성숙
배여진 김정순 김행숙 서순옥 서금순
박영구 조장현 박태수 김일량 장송재
본회) 최우성 조현숙 최금란 박정미 정봉채
박봉수 전재우 김진문 윤종일 김석한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중지미디어

<http://www.chongji.or.kr>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발행일 총기 53(2024)년 8월 1일

발행인 우인 정사

편집책임 박재원

발행 불교총지중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8월호



부자로 살고 싶은가?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라
존경받고 싶은가?
선지식을 존경하라
오래 살고 싶은가?
다른 생명을 존중하라

- 환당 대종사 법어록 중에서 -